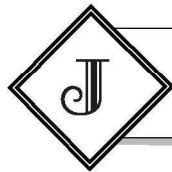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 학습자용



직업윤리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안내

개요

이 학습자용 가이드북은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10가지 직업기초능력 가운데 하나인 직업윤리에 대한 것이다. 즉, 일상생활 및 학문으로서의 광범위한 직업윤리가 아닌, 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직업윤리표준에 대한 가이드이다.

직업윤리란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 및 올바른 직업관을 의미하며, 크게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로 구분된다. 근로윤리는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이며, 공동체윤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책임감을 지니며,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뜻한다.

최근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많은 학교나 기업에서 학습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직업윤리를 배양하거나 습득하는 데 적절한 기본 가이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용 가이드북은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자기 주도적으로 진단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직업윤리 학습자용 가이드북은 크게 활용안내, 사전확인, 학습모듈, 사후확인,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활용안내는 가이드북의 전체적인 개요와 구성을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가이드북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사전확인은 학습모듈을 학습하기 전에 직업윤리에 대한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모듈은 직업윤리에 대한 학습모듈(J-1)과 직업윤리를 구성하는 각 하위능력에 대한 학습모듈(J-2-가, J-2-나)로 구성되어 있다. J-1 학습모듈은 직업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J-2-가 학습모듈은 근로윤리에 대한 것이고, J-2-나 학습모듈은 공동체윤리에 대한 것이다.



〈직업윤리 학습자용 가이드북 구성도〉

각 학습모듈은 학습목표, 주요용어, 학습활동, 학습정리로 구성하였다.

학습목표에는 각 학습모듈의 일반목표와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용어에는 각 학습모듈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keyword)가 제시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기본(Basic) 학습활동, 보충(Remedial) 학습활동, 그리고 심화(Advanced)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B) 학습활동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직업윤리표준에 제시된 기본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데 유용한 필수적인 학습을 의미한다. 보충(R) 학습활동은 기본(B) 학습활동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를 위한 보충적인 것으로 보다 기초적인 내용이다. 심화(A) 학습활동은 기본(B) 학습활동을 이미 이해하고 있거나 기본(B) 학습활동을 통해서 보다 심화된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보충(R) 학습활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제시된다. 따라서 기본(B)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보충(R) 학습활동이나 심화(A) 학습활동은 학습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하면 된다.

각 학습활동은 사례,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에는 직업생활 중 해당 학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활동에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내용에는 해당 학습활동과 관련이 있는 관계지식 및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학습정리에는 각 학습모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사후확인에는 모든 학습모듈에 대한 학습을 마친 후 학습자가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에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현행화 이후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은 별도의 ‘학습내용 확인하기’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 생활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습내용 확인하기’는 가이드북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심벌

각 학습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심벌을 사용하였다. 심벌은 기본(Basic), 심화(Advanced) 및 보충(Remedial)으로 학습활동을 구분하고,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주요용어와 사례, 활동, 내용을 시각화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심벌을 통해 이를 기호화하여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에서는 10가지 직업기초능력에 동일한 심벌을 사용하여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하였다.



기본(Basic) 학습활동 : 모든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보충(Remedial) 학습활동 : 기본 학습활동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기초 내용



심화(Advanced) 학습활동 : 기본 학습활동이 충분한 학습자를 위한 심화 내용



주요용어 : 학습모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Key word)



사례 :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사례



활동 : 학습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활동

활용방법

직업윤리 학습자용 가이드북은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집단적인 교수 상황은 물론 개별 학습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인 교수 상황에서 교수자의 주된 역할은 학습을 지원하고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집단적인 교수 상황에서 활용할 때 교수자가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은 교수자용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용 가이드북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학습해도 좋으나 먼저 사전확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이 가이드북 활

용안내 다음에 제시된 사전확인을 활용하여 현재 자신의 직업윤리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확인은 학습모듈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인결과 자신의 수준이 충분한 부분은 다음 학습활동으로 넘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확인 문항별로 제시된 관련 학습모듈 및 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학습활동을 학습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결과에 따라 순서를 재구성하거나, 일부 학습내용은 제외하고 학습하여도 무방하나, 직업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J-1 직업윤리를 학습한 후에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J-2-가 근로윤리, J-2-나 공동체윤리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활동은 사례,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 및 학습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활동을 우선 학습한 다음 관련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사후확인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 수준에 따라 미흡한 경우 모듈 전체를 복습하고, 보통인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며, 우수한 경우 다음 모듈을 학습한다.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다음은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업윤리 수준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다. 본인의 평소 행동을 잘 생각해 보고, 행동과 일치하는 것에 체크해 보자.

문항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1.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다.	1	2	3
2. 나는 시대와 사회 상황이 요구하는 윤리규범을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	1	2	3
3. 나는 나의 삶에서 직업이 큰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5.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한다.	1	2	3
6. 나는 직업생활에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며 생활한다.	1	2	3
7. 나는 이익이 되는 일보다는 옳고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한다.	1	2	3
8. 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이익이 되더라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일은 지적하는 편이다.	1	2	3
9. 나는 조직 내에서 속이거나 숨김없이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1	2	3
10. 나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말하고 메모하여 지키려고 노력한다.	1	2	3
11.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존중하고 자부심이 있으며, 정성을 다하여 처리한다.	1	2	3
12. 나는 건전한 직업활동을 위해 올바른 생활자세를 유지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편이다.	1	2	3
13. 나는 내 업무보다 다른 사람의 업무가 중요할 때, 다른 사람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다.	1	2	3
14. 나는 평소에 나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 사회,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15. 내가 속한 조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시받기 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문항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16. 내가 속한 조직에 주어진 업무는 제한된 시간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편이다.	1	2	3
17. 나는 속한 조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18.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다.	1	2	3
19. 나는 조직생활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별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는 편이다.	1	2	3
20. 나는 질책보다는 칭찬이나 격려 등의 긍정적인 언행을 더욱 하는 편이다.	1	2	3

확인방법

체크리스트의 문항별로 자신이 체크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적어 보자.

문항	수준	개수	학습모듈	Page
1~4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J-1 직업윤리	11~28
	그저 그렇다.	()개		
	그런 편이다.	()개		
5~1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J-2-가 근로윤리	29~43
	그저 그렇다.	()개		
	그런 편이다.	()개		
13~20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개	J-2-나 공동체윤리	45~61
	그저 그렇다.	()개		
	그런 편이다.	()개		

확인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자신의 수준을 진단한 후, 한 문항이라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나오면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므로, 제시된 학습내용과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학습해 보자.

학습모듈



J-1: 직업윤리 p. 11

B₁ : 윤리의 의미 p. 12

B₂ : 직업의 의미 p. 16

B₃ : 직업윤리의 의미 p. 22

J-2 : 하위능력별 학습 p. 29

J-2-가: 근로윤리 p. 29

B₁ : 근면한 태도 p. 30

B₂ : 정직한 행동 p. 35

B₃ : 성실한 자세 p. 39

J-2-나: 공동체윤리 p. 45

R₁ : 봉사과 책임의식 p. 46

A₁ : 준법성 p. 50

A₂ : 예절과 존중 p. 54



학습모듈 J-1

직업윤리

직업활동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인들은 자신의 직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직업윤리는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목표

일반 목표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올바른 직업윤리를 배양할 수 있다.

세부 목표

1. 윤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직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주요용어



윤리

직업

직업윤리

학습활동



윤리의 의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는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함께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약 남에게 통제받지 않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힘을 평생 올바르게 않은 일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사례



기게스의 반지(Ring of Gyges)

옛날 리디아에 기게스(Gyges)라는 목자가 있었다. 어느 날 심한 뇌우와 지진이 있고 나서 땅이 갈라지더니, 그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던 곳에도 갈라진 틈이 생겼다. 그는 이를 보고 놀라워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몸을 구부리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 크기보다도 더 커 보이는 송장이 있었다. 송장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만을 끼고 있었는데 그는 그 반지를 빼낸 뒤 밖으로 들고 나왔다.

마침 한 달에 한 번 양에 관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목자 모임이 있어 그 반지를 끼고 참석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던 그는 우연히도 반지의 보석받이를 자신을 향해 손 안쪽으로 돌렸다. 그러자 동석한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가 그 자리에 없는 듯이 대화를 이어 나갔다. 놀란 그가 다시 반지의 보석받이를 밖으로 향하게 돌렸더니,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를 알아차린 그는 과연 반지가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험해 보았는데, 역시 보석받이를 안쪽으로 돌리면 그가 보이지 않았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반지의 힘을 확인한 그는 왕에게 가는 사자들 속에 끼어 왕궁에 도착한 후 왕비와 간통을 하고 왕비와 함께 왕을 덮쳐 살해한 다음, 왕국을 장악했다.



활동



다음은 이기심에 바탕을 둔 인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각자 생각해 보고, 빈칸을 채워 보시오.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공범자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구속되기 전에 서로 범행에 대해 침묵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각각 다른 방에 가두고 심문을 하였다.

경찰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두 범인에게 각각 “네가 범행을 자백하고 네 동료도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무죄방면 되고 네 동료는 무거운 형을 받는다. 그러나 네 동료도 자백하고 너는 침묵한다면 네 동료는 무죄방면되고 너는 중형에 처해진다.”라고 하였다.

범인은 침묵(협력), 자백(배반) 중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각각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

- 범인 A가 자백하고 범인 B가 침묵할 때 : 범인 A는 무죄, 범인 B는 20년형
- 범인 A가 자백하고 범인 B가 자백할 때 : 범인 A, B 둘 다 10년형
- 범인 A는 침묵하고 범인 B가 자백할 때 : 범인 A는 20년형, 범인 B는 무죄
- 범인 A가 침묵하고 범인 B가 침묵할 때 : 범인 A, B 둘 다 1년형

두 범인은 각각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는 가운데 ‘자백(배신)’과 ‘침묵(협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범인 B	
		자백	침묵
범인 A	자백		
	침묵		



내용

◆ 윤리의 의미

윤리의 ‘윤(倫)’은 동료와 친구, 무리, 또래 등의 인간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길, 도리, 질서, 차례, 법(法) 등을 뜻하기도 한다. 즉 인간관계에 필요한 길이나 도리,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의 ‘리(理)’는 다스린다(治), 바르다(正), 원리(原理), 이치(理致), 가리다(판단 判斷), 밝히다(해명 解明), 명백(明白)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 윤리(倫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삶의 목적과 방법, 책임과 의무 등과 관련된다. 동양적 사고에서 윤리는 전적으로 인륜(人倫)과 같은 의미이며,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의 의미가 배어 있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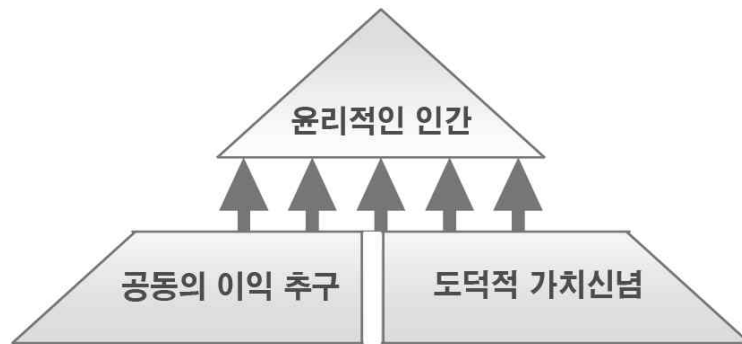
윤리와 도덕은 그 어원이 같다. 윤리(ethic)는 희랍어의 ‘ythos(품성)’와 ‘ehos(풍습)’에서 비롯하였으며, 도덕은 라틴어의 ‘moris(품성 또는 풍습)’가 어원이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별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도덕이란 도를 실천해야 할 주체적 태도를 의미한다.

◆ 윤리의 중요성

윤리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모든 사람이 윤리적 가치보다 자기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면 사회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을 위한다면, 끊임없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며, 윤리적으로 살 때 개인의 행복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기에 윤리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혼자 비윤리적 행동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과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본질적 가치와 도덕적 신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인 인간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윤리적 인간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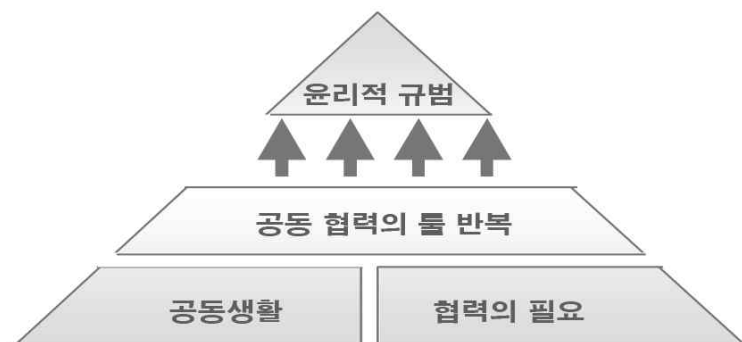
◆ 윤리규범의 형성

인간은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도움이 되는 사물이나 행동을 좋아하고, 반대로 방해가 되는 경우는 싫어한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개인의 욕구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족된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도 수많은 사람을 거쳐야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는 찬성을 하고, 반대되는 행위는 비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 등으로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아 윤리규범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윤리규범은 '공동생활'과 '협력'이 필요한 인간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 행동의 룰'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림 2〉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윤리적 가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림 2〉 윤리규범 형성



직업의 의미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 인간은 경제적인 안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건강할 때, 자아를 실현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안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건강 및 자아실현은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직업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같은 일이라 해도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직업을 대하는 자세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과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사례



세 청소부 이야기

#1.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로비를 지나다 우연히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하듯,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에게 다가가 무엇이 그렇게 흥이 나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 청소부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2. 비비안은 1986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샌프란시스코의 한 모텔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먹고 살기 위해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녀는 변기 청소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일과 목표, 소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변기 청소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창조해 낸 감정적 연결이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고향인 베트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사실 자체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렇기에 변기 청소라는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례 계속)

#3.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난 청소 담당 직원이 있었다. 그는 병실 바닥에 흩어진 휴지는 치우지 않고 그저 휴지통만 비웠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하여 직접 휴지를 치우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에게 “옆에 떨어진 휴지도 좀 치워 주실래요?”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병상에 누워 있는 나를 향해 “저는 휴지통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청소부가 아니라고요”하고는 나가 버렸다. 병원에서 휴지통을 비우라고 했으니, 휴지통만 비운다는 뜻이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6/05/380739/>

**활동**

다음 질문에 따라 빈칸을 작성하고, 직업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다음 각 항목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표시하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 4점, 매우 중요하다: 7점)

1. ____ 가족생활
2. ____ 사회생활
3. ____ 여가생활
4. ____ 일
5. ____ 종교
6. ____ 학업 또는 능력개발

당신은 왜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____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2. ____ 일 자체가 좋아서
3. ____ 자아실현을 위하여
4. ____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5. ____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6. ____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7. ____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8. ____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9. ____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
10. ____ 노후 대책을 위하여

위 답변에서 높은 점수순으로 5개를 골라 보고, 이것이 현재 자신이 속한 직업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5순위 _____



내용

◆ 인간의 삶과 일

일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인간의 삶을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일은 그 자체와 일의 결과가 사람의 기쁨과 연결된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나무의 열매를 따고 짐승을 사냥하는 것 자체가 자신과 가족의 몸을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놀이이자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져, 일을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은 경제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단순히 보수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고려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신을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실현한다.

일은 의무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진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결국, 일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직업의 의미

직업(職業)에서 '직(職)'은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職分)을, '업(業)'은 일 또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 및 현생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과 하늘이 맡긴 소명, 전생의 허물을 벗기 위한 과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이 갖추어야 할 속성은 계속성과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자발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계속성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일을 하거나, 계절 또는 명확한 주기가 없어도 계속 행해지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성은 직업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나 전업 학생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 발생적인 이득의 수취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도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영리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추구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모든 직업 활동이 사회 공동체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성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 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강제노동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일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속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직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우리사회의 직업의식

직업의식은 ‘개인이 직업 활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재적·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업이나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 가치, 습관,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가치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직업의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근대 이전 우리나라에 신분제가 존재했고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직업에도 차별이 존재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가르침에 따라 사농공상으로 신분을 구별하였으며 학문과 정치에 관련된 직업만 높이 평가하고 다른 직업은 천시하였다. 이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 능력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자아실현을 이루는 도구로 직업을 선택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사회 직업의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영역별 중요도가 2006년에는 가족생활, 일, 여가생활의 순이었으나 2010년부터 가족생활, 여가생활, 일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삶에서 여가생활이 일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직업을 갖는 이유는 가족 부양을 포함한 경제적 이유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노후대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지난 20년간 중요해졌다. 반면 지난 20년간 직업을 갖는 이유로 감소한 항목은 ‘일 자체가 좋아서’였다. 즉 직업 자체를 통해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내재적 가치보다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외재적 가치가 지난 20년간 부상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의무로서의 노동과 불로소득에 대한 혐오감 등 생산적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2010년에는 3.70(5점 만점)이었으나 2018년은 3.38로, ‘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등에 대해서도 지난 8년간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직업윤리의 의미

인간의 직업생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직업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인 사이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적인 도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각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직업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례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의 말과 행동

1912년 4월 15일, 영국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장은 배에 이상을 느끼자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출할 것을 승무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장 자신은 조타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키를 놓지 않고 배와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선교에까지 물이 차오르자,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수고했다. 자네들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네. 그것도 아주 잘... 나는 자네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자네들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바다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이제 잘 알 것이다. 이제 자네들의 살길을 찾아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실제로 타이타닉호 침몰 시 어린이와 여성을 구조한 비율은 78%로 남성의 2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기억되는 타이타닉 사고 이후,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의 태도는 전 세계 선장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스미스 선장이 사람들을 향해 외친 “Be British!(영국인답게 행동하라)”라는 말은 그가 죽은 뒤 그의 동상에 새겨졌습니다.



활동



다음 주어진 사례를 읽고, 주어진 질문에 따라 자신의 직업윤리에 비추어 빈칸을 작성해 보시오.

사례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직업 경찰이 되었다. 직업 경찰이 된 지 2년째이다. 오늘은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날이다. 방금 전 파란색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갓길에 차를 멈추게 한 후 창문을 열어 운전자를 확인했다. 그런데, 운전자는 나의 고등학교 친구였다. 친구는 실수로 신호를 위반했다며 나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고용노동연수원(201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p26

사례 2.

나는 대학병원 의사이다. 얼마 전 중환자실에 환자 한 명이 들어왔다. 응급조치 후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 환자는 유명한 살인범이라고 한다. 경찰과의 사투 중 큰 사고를 당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되어 온 것이다. 의사의 본분이 인정, 신분, 나이를 초월해 누구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지만, 내가 치료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치료하고 싶지 않기도 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드림레터 2018-28] (중등) 사회적 믿음의 기반이 되는 직업윤리

1. 만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2. 다른 상황에도 그렇게 하겠는가?

--

3. 이 판단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

4. 만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

5. 혹시 이 판단이 다른 결과를 만들지는 않을까?

--

6. 10년이나 20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



내용

◆ 직업윤리의 의미

직업윤리란 “직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부응하여 개인이 갖추고 발달시키는 직업에 대한 신념, 태도,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이다. 기본적으로는 직업윤리도 개인윤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개인윤리의 기본 덕목인 사랑, 자비 등과 방법론상의 이념인 공동발전의 추구, 장기적 상호이익 등의 기본은 직업윤리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행복을 위한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는 사람 사이의 윤리관계에 비하여 좀 더 전문화된 분업체계로서의 직업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덕목과 규범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은 사인(私人)의 입장과 직업인으로서의 공인(公人) 입장이 합해져 한 사람의 개인적 인격을 구성한다. 우리 모두는 공사의 구분, 동료와의 협조, 전문성, 책임감, 사회적 책임 등 직업윤리의 확립을 통해 존경받는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직업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에는 사회시스템 전체의 관계를 규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통보편적 일반윤리’와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로서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단체 등 특정 조직체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효율을 도모하는 ‘특수윤리’가 있다.

만일 ‘모든 직업인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 일반의 윤리’일 것이며, 공직자나 의사, 교육자 등 직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윤리는 ‘직업별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것은 직업적 활동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의 직업윤리 수준이 낮을 경우 경제 행위에 근간이 되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경제발전 또한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직업윤리는 개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분명한 비전과 바람직한 태도를 통하여 부와 명예를 획득했다 해도 그것이 곧 직업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직업적 성공은 부와 명예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부와 명예는 그 생명이 길지

않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직업적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

일반적인 직업윤리는 다음 6가지를 말한다.

- ① 소명의식 :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에 의해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 ② 천직의식 :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는다 여기고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
- ③ 직분의식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태도
- ④ 책임의식 :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
- ⑤ 전문가의식 : 자신의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지식과 교육을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믿고 수행하는 태도
- ⑥ 봉사의식 : 직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실천하는 태도

그리고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직업윤리 덕목으로 책임감, 성실함, 정직함, 신뢰성, 창의성, 협조성, 청렴함순으로 강조하고 있다.

◆ 개인윤리와 직업윤리의 조화

직업윤리는 개인윤리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개인윤리의 덕목에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행사(폭력)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관이나 군인 등의 경우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직업윤리와 개인윤리는 아래와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 ① 업무상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을 맺게 된다.
- ② 수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고도화된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므로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완수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 ③ 규모가 큰 공동의 재산과 정보 등을 개인의 권한하에 위임 또는 관리하므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 ④ 직장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갖는 집단적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나 개인적 선호에 의한 친분관계와는 다른 측면의 배려가 요구된다.

- ⑤ 기업이 경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강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조직원 개개인의 역할과 능력이 경쟁상황에서 꾸준히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 ⑥ 특수한 직무 상황에서는 개인적 덕목차원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규범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상황에 따라 두 윤리가 충돌하거나 배치하기도 한다. 개인윤리가 보통 상황에서의 일반적 원리규범이라고 한다면 직업윤리는 좀 더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천규범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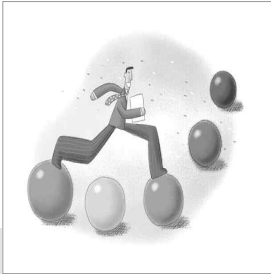
업무 수행상 직업윤리와 개인윤리가 충돌할 경우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 행동기준으로는 직업윤리가 우선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 윤리기준에 입각한 개인윤리를 준수하고 공인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정리

1. 윤리적인 인간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2.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 어떤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 등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윤리적 가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3. 윤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인간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에는 도덕적 타성과 도덕적 태만, 거짓말이 있다.
5. 직업은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줄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물질적인 보수 외에 만족감, 명예 등 자아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6. 직업에 종사하는 현대인으로서 누구나 공통으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직업윤리'라고 한다.
7. 직업윤리의 일반적 덕목에는 ①소명의식 ②천직의식 ③직분의식 ④책임의식 ⑤전문가의식 ⑥봉사의식 등이 있으며, 한국인들은 중요한 직업윤리 덕목으로 ①책임감 ②성실함 ③정직함 ④신뢰성 ⑤창의성 ⑥협조성 ⑦청렴함 등을 강조한다.
8. 직업윤리란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이다.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도 개인윤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개인윤리의 기본 덕목인 사랑, 자비 등과 방법론상의 이념인 공동발전의 추구, 장기적 상호이익 등의 기본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행복을 위한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는 기술과 전문화된 분업체계로서의 직업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덕목과 규범이 존재한다.

2. 하위능력별 학습



학습모듈 J-2-가

근로윤리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중에서,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며 또한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인 근로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근로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덕목인 '근면', '정직', '성실'을 살펴보자.

학습목표

일반 목표

직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근면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배양할 수 있다.

세부 목표

1. 직업생활에서 근면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2. 직업생활에서 정직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3. 직업생활에서 성실한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주요용어



근면

정직

성실

학습활동



근면한 태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시간을 지키고, 부지런하게 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직업 생활에서 이러한 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다음은 우리 기술자들이 이룬 ‘세계 8대 불가사의 - 리비아 대수로 공사’ 신화창조 사례이다.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에 ‘인공강’을 건설하는 이 공사는 50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공사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린다.



사례



리비아 사막의 불사조, 119프로젝트

1983년부터 시작된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서 동아건설의 기술자들은 거의 2000km에 달하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기적의 강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1990년에 다시 시작된 2단계 공사는 2000년 10월, 5%의 공정을 남겨 두고 감동의 통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의 최종 부도소식은 리비아에 있는 현지기술자들을 절망 속으로 몰고 갔다. 리비아 정부는 부도가 난 회사에 더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에 위약금으로 총 13억 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2단계 공사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경우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길어지는 데다 이미 완공한 1단계 공사의 하자보수 처리에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이 됐다. 결국 고민 끝에 리비아 정부는 한국 측에 긴급제안을 했다. 그것은 바로 2단계 공사 중, 타루나-제프라 구간 24km에 119만 톤의 물을 긴급 공급하라는 것, 일명 119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파산한 회사가 단 10개월 만에 24km의 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하지만 리비아 현지 3500여 명의 우리 기술팀은 긴급회의를 열어 119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사례 계속)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과 19년에 걸친 대수로 공사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한국 기술진의 자존심이 바탕이 되었다.

119프로젝트의 공사 구간은 리비아 현지인들도 두려워하는 사막의 험난한 산악지대였다. 또한 우기(1,2월)에 모래바람이 몰아치는(3,4월) 최악의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용한 지 20여 년이 지나 고장이 잦은 중장비와 100만 km 이상을 뒀 송수관 수송차량으로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모래바람을 이겨 냈고,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싸우며 점점 목표에 다가갔다.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타루나-제프라 구간 24km에 119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한 우리 기술진들의 눈물겨운 신화였다.



활동



사례 내용을 통해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한국 기술자들의 근면성을 알 수 있다. 일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근면한 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해 보시오.

1.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2.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3. 주어진 일이 남았으면 퇴근 후라도 끝까지 일을 마친다.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내용

◆ 근면의 의미

사전에서 근면(勤勉)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표준국어대사전)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사회 과학적 연구에서는 근면의 개념적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낸다.

첫째, 근면은 고난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근면은 행위자가 환경과의 대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근면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둘째, 근면은 비선호의 수용 차원에서 개인의 절제나 금욕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사치와 향락, 소비를 거부하고 이윤 축적의 직업윤리를 수행해 왔다. 즉 근면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전과 시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근면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과정으로 인내를 요구한다. 근면이란 끊임없이 달성이 유예되는 가치지향적인 목표 속에서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제개발에서 공업국가의 꿈은 그 꿈이 근접할 때 선진국으로 다시 초일류국가로 전환되면서 달성 시점을 유예한다.

근면의 특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면과 인생의 성공은 표리 관계에 있다. 근면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게을러서 성공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근면한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면한 것은 성공을 이루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 근면의 종류

근면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고, 둘째는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다.

과거 논밭이나 작업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일을 했던 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강요된 근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면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면은 외부 조건으로부터 강요당한 것이다.

하지만 자진해서 하는 근면은 자신의 것을 창조하며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아침에 하는 외국어 공부 또는 운동처럼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진해서 하는 근면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바탕이 된다.

◆ 우리 사회의 근면성

한국사회에서 근면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문화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인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근면’과 ‘일중독’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생활양식과 노동양식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처럼 근면은 한국사회 내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먼저 근면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이끈 주요한 동력으로 인식된다. 가난과 전근대의 이중적 굴레 속에서 한국사회는 근면이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였다. 반면 국가와 공동체의 번영이 개인보다 중시되면서 노동이 극대화된 점과 과도한 자기계발과 노동 중독 등의 현상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인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5위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7시간으로 당해 통계가 작성된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길었다. 독일과 일본, 미국 같은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각각 1305시간, 1706시간, 1792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근로시간이 매우 긴 편이다. 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9.6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다. 1위인 아일랜드는 99.7달러, 미국(7위)은 70.8달러로, 한국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다.

“20세기 성장을 육체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이끌었다면, 21세기는 지식노동의 생산성이 이끌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성과를 버리고 그저 바쁘게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업(Business)보다는 그냥 바쁘기(Busyness)를 택한 것처럼 보인다.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 근면은 미덕이었고 남보다 부지런하면 일을 잘하는 것이었고, 남들이 일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악덕이었다. 이러한 ‘농업적 근면성’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을 지배해 온 것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열심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 중요하다. 일하는 양보다 일의 질이 중요한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에서 비롯한 양 중심 사고가 지식사회 적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물론 창의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근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게으름이 미덕은 아니지만 단순히 바쁜 것만으로는 지식사회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근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이나 타인 등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일과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근면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의 확립, 나아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근면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정직한 행동

직업인은 업무를 처리하다가 가끔 정직한 행동과 부정직한 행동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다. 정직한 행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부정직함이 주는 일시적 이득에 현혹되어 비윤리적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거나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정직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얼마나 클까?



사례



백화점 왕의 성공 비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워너메이커는 어려서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워너메이커는 성품이 워낙 정직해 옷을 팔 때도 손님들에게 옷의 장단점을 사실대로 설명했는데, 어느 날 이런 모습을 가게 주인이 봤다. 주인은 워너메이커를 나무라며 그렇게 장사했다간 돈을 벌 수 없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워너메이커 생각은 주인의 생각과 달랐다. 정직하게 팔아야 손님이 가게를 다시 찾을 거라는 것이었다.

주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했던 워너메이커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의 행동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게는 점점 손님들로 붐볐고, 장사는 말할 것도 없이 잘됐다. 훗날 가게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워너메이커에게 가게를 물려주었고 그는 23세에 남성의류점을 갖게 됐다.

워너메이커가 의류점을 운영할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물건값을 마음대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고, 인기 있는 품목일수록 물건값이 원가보다 훨씬 높게 팔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정가 판매제’를 도입하고 품질 표시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반품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워너메이커가 운영하던 가게는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는 미국 최초로 뉴욕에 백화점을 세우며 미국의 10대 재벌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싱글생글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8102300611000081&c1=04&c2=0>



활동



자신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자신의 일 경험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람 중 정직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의 행동과 성격, 태도, 가치관, 특성들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오.

▶

▶

▶

▶

▶



내용

◆ 정직의 의미

사전에서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표준국어대사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정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하며, 그것이 확대된 사회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협력에 필요한 판단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큰 조직과 사회체제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회시스템은 구성원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것이며, 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 바로 정직인 것이다. 물론, 정직이 신뢰를 형성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 이외에도 약속을 잘 지키거나 필요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다른 필요사항도 있어야 하겠지만 정직이 신뢰를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다.

◆ 우리 사회의 정직성

한국인의 92%가 자기의 종교와 상관없이 유교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이나 ‘윤리’가 유교의 전통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유교의 영향으로 집단의 조화를 위한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지니고 있지만, 관계에 기초한 가치를 강조함에 따라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집단주의의 배타적 이익 추구 행태, 더 나아가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관계 지향적인 유교의 전통 가치는 근본적으로 사적 윤리이다. 그렇기에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위법이나 부정을 용인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죄책감을 둔화시킨다. 이렇게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정직’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와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서 괴리를 발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채 근대적 가치 속에서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고 도덕적 발전 방향을 상실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로 인한 문제는 해마다 그 심각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보고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별 순위에서 2010년 39위, 2011년 이후 줄곧 40위권 밖에 머물렀고, 2019년 9년 만에 세계 180개국 중 39위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위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직성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한 자세

“최고보다는 최선을 꿈꾸어라.”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이는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성실한 자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다음 사례는 고려청자의 대가 해강 선생의 사례이다. 해강 선생은 단순한 노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자기 술잔 외면에 조각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려 넣는 업무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다음 사례를 읽어보도록 하자.



사례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실함과 장인정신

고려청자 재현에 열성을 보인 해강(海剛) 유근형(柳根瑩) 선생. 그는 젊은 시절 고려청자의 미려한 선, 우아한 색채, 은은한 광택, 특히 푸른 비색에 탄복하여 직접 고려청자를 재현해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18세가 되던 해인 1911년 일본인 공장이던 한양고려소(漢陽高麗燒)에 취직했다.

당시 일본인 공장에서는 조선인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단순한 작업만 시켰지만 그는 유약의 배합을 결눈질로 익히면서 고려청자 재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강한 의지로 술잔 외면에 글씨를 새기고 내면에는 운학(雲鶴)을 조각해 넣은 기념품 6만 개를 5개월 만에 만들어 내어 일본인에게 감동을 준 일화는 유명하다.

청자 재현의 기초를 습득한 그는 일본인 공장을 나온 후 경기도 분원의 사기장 출신인 김완배를 찾아 그가 은거하고 있는 강원도 양구로 간다. 그에게 유약 제조법의 기본을 배운 유근형은 청자 제작에 좋은 태토를 찾기 위해 황해도 봉산 관정리와 함경북도 생기령 등을 다녔다. 청자 유약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고려시대 때 청자 가마터를 수소문해서 강진을 비롯한 전국의 옛 가마터를 답사했다. 유약과 태토의 비법을 어느 정도 찾아낸 그는 여주와 수원의 야산에 장작 가마를 만든 후 끝없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불과 씨름을 했고, 1928년 드디어 일본 벳푸시(別府市) 박람회에 청자를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이는 고려청자 복원의 성공을 알리는 첫 신호였으며, 불굴의 노력과 특유의 성실함이 만든 결정체였다.



활동



각자 자신의 일 경험이나 일상에서 보았던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들의 태도나 행동의 특징들을 작성해 보시오.

성실한 자세	성실하지 않은 자세
▶	▶
▶	▶
▶	▶
▶	▶
▶	▶



내용

◆ 성실의 의미

사전에서 성실(誠實)은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풀이하고 있다. 성(誠)은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됨을 의미하며, 실(實)은 알차고 진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실은 그 단어의 본질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가 근면함보다는 충(忠) 혹은 신(信)의 의미와 더 가깝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며 행동의 지속성을 갖게 하는 성취 지향적인 성질’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의 성향은 사회규범이나 법을 존중하고 충동을 통제하며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며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서 들은 “최고보다는 최선을 꿈꾸어라.”라는 말은 성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것은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진리이다. 성실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성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 없고 신뢰는 깨어진다. 천재는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성실이 뒷받침된다면 1퍼센트 모자란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성실성

창조, 변혁, 개혁, 혁신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성실의 덕목은 자칫 시대정신에 뒤지는 개인의 낡은 생활방식으로, 다분히 도덕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은 도덕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뭔가 진취성이 부족하거나 창조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심지어는 변화하는 시대에 요령 없이 기존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가리키는데, 신뢰를 포괄하는 성실은 보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의 키워드 1위가 ‘성실성’이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1위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성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 진리와 부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끈다. 성실의 덕이 중

요한 까닭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항상성과 정성스러움을 동시에 갖추기 때문이다. 즉 성실은 일 하나하나에, 사람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성을 다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항상성의 특징은 성실이 다른 덕목들의 모태가 되게 하며, 어떠한 일을 할 때 꾸준히 자신의 정성을 다하도록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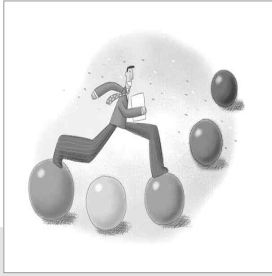
반면 성실의 결핍은 생각과 말, 행동의 불일치를 통해 드러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일상 의 삶에서 위선과 거짓, 사기, 아첨, 음모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 사회 에서 위법 행위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성실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성실은 시대 개념적 차원에서 볼 때 현대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한계성 또한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성실의 전환을 시도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학습정리

1. 근면이란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으로, 근면의 개념적 특성은 고난의 극복, 비선호의 수용, 인내로 나타난다.
2. 근면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고, 둘째는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다. 외부 조건으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 아닌 자진해서 하는 근면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3. 앞으로는 조직이나 타인 등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일과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농업적 근면성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의 확립, 나아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근면의 구현이 필요하다.
4.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으로, 사회시스템은 구성원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운영이 가능한 것이며, 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바로 정직이다.
5. 유교의 전통 가치는 ‘정직’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와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서 괴리를 발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6. 성실(誠實)은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정의된다. 성(誠)은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됨을 의미하며, 실(實)은 알차고 진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실은 그 단어의 본질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가 근면함보다는 충(忠) 혹은 신(信)의 의미와 더 가깝다.
7. 창조, 변혁, 개혁, 혁신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성실은 다분히 도덕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습모듈 J-2-나

공동체윤리

원만한 일경험을 위해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중에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감 있게 규칙을 준수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인 공동체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책임의식, 준법성, 예절 등의 자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목표

일반 목표

직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봉사하며, 책임 있고, 규칙을 준수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배양할 수 있다.

세부 목표

1. 직업생활에서 봉사와 책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직업생활에서 준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3. 직업생활에서 예절과 존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주요용어



봉사

책임의식

준법

예절

학습활동



봉사와 책임의식

일경험에서 자신의 이해만을 생각하기보다 국가나 기업, 또는 남을 위해 일하며,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신은 무엇인지, 직업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사회 또는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다. 명시화된 업무가 아니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례



코로나 속에 빛난 영웅들

- 대구지역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때, 이에 전면으로 맞서 싸운 의료진들이 있다. 당시 지역거점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K씨는 방호복을 입고 있으니 온몸에 땀범벅이 되어도 닦을 수 없고,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어지럽기도 했으며, 음압기 소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 사비로 무전기를 사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그만두면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간호사의 작은 실수로도 환자가 위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힘들지 않게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날 발생한 확진자의 동선을 먼저 확인하는 게 L씨의 하루 일상이 됐다. 확진자 경로를 밝혀내기 위해 L씨는 사흘 밤을 꼬박 새웠다. 몸은 부서질 것처럼 힘들었지만 실시간으로 경로 파악과 접촉자 격리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일분일초가 아까웠다.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하는 환자를 직접 어르고 달래 동선을 파악하고, 빠진 동선이 있는지 CCTV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시간과 장소를 교차 검증한다. 밀접 접촉자는 누구인지, 자가격리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하

(사례 계속)

는지, 접촉자 분류와 방역 조치까지 모두 L씨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L씨는 “저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모든 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제가 이 일을 맡은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충격에 신음하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자영업자들이 있다. 음식점을 하는 P씨는 인근 독거노인에게 하루 설렁탕 30그릇씩 한 달에 1천 그릇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돼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P씨는 “음식 장사를 30년 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긴 하다”면서도 “이제 은퇴가 머지않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좋은 일을 할까 싶어서 결심했다. 음식 재료가 빨리 회전되니 장사에도 도움이 된다”며 웃었다.

출처: 굿뉴스코리아

<http://www.goodnews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



활동



위 사례 속 인물들이 보여 준 행동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경험에 있어 봉사와 책임의식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각자 자신의 일경험에서 자신의 이익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쁨을 얻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내용

◆ 봉사와 책임의식의 의미

사전에서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봉사는 원래 상대방을 위해 도움이나 물건을 제공해 주는 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뜻이 자원봉사에 가깝게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직업인에게 봉사란, 일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나아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서비스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책임의식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지려는 태도이며, 맡은 업무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행해 내는 태도이다.

직업을 가진 모든 개인은 그 사회의 기능을 일부 나누어 맡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한다.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직업은 점점 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이전처럼 자급자족할 수는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전체 사회 속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는 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직업인은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정신’과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직업 활동에 임해야 한다. 특히 직업세계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사회 환원 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 기업도 단순히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의 형태를 벗어나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개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광범위한 사회문제 영역에서 비판적 여론과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인들이 그동안 이윤 추구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부도덕한 행위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행위들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 사회 전체의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준법성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인 사이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리보다도 좀 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직업인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과 법질서이다. 직업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규칙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준법은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생활 자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례



처칠과 두 명의 경찰관

2차 대전 중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일화이다.

처칠이 전용차를 타고 급히 의사당을 향해 가고 있었다. 회의시간이 임박해 교통이 막히자 처칠은 운전사를 재촉했다. 정체된 다리 위를 간신히 빠져나온 운전사 역시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빨간 신호인 줄 알면서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교통위반을 목격한 교통경찰관이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전용차를 정지시켰다.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다가와 교통위반 사실을 알려 주고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려 했다. 운전사는 차 밖으로 나와 교통경찰관에게 껄속말로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지금 이 차에는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네. 회의시간에 늦었으니 어서 보내 주게!”

그러자 교통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은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계신 수상 각하의 차가 교통신호를 어겼을 리 없습니다. 또 혹시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신 차라고 해도 교통신호를 위반했으면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떼야 합니다. 법은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통경찰관은 결국 처칠 수상의 차에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비록 회의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영국에 올바르게 성실한 경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윈스턴 처칠은 그 경찰관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교통 경찰관의 일 계급 특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윈스턴 처칠

(사례 계속)

수상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상 각하! 경찰청 내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댄 교통경찰관을 일 계급 특진시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경찰관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경찰청장의 말을 듣고, 순간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이 땅에는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영국의 수상이라는 사실이 또한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웠다.

출처: 기독타임즈

<http://www.kidoktimes.co.kr/2740>



활동



다음은 각자의 법 준수 인식에 대한 질문이다.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체크하고, 그 이유를 공유해 보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2.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3.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4. 법이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5. 법이 양심에 어긋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6. 나에게 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내용

◆ 준법의 의미

준법이라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생활 자세다. 민주 사회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라스웰은 민주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여 얻어진 합의를 지키고 따르는 '준법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준법의식

우리의 준법의식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60.9%, '그렇지 않다'가 39.1%로 나타났으며,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7.6%), '권위주의'(20.1%), '부적절한 법집행'(20.0%), '국민의 법의식 부족'(12.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준법 수준을 묻는 질문에 82.1%가 '법을 잘 지킨다'(매우 잘 지킨다 21.4%, 잘 지킨다 60.7%)라고 응답한 반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은 1.5%(전혀 지키지 않는다 0.1%, 잘 지키지 않는다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나를 제외한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잘 지킨다'가 73.9%, '지키지 않는다'가 26.1%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잘 지킨다'는 응답이 82.1%였던 것과 비교하면, 본인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준법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의 준법 정도를 묻는 2008년과 2015년 조사연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008년 37.1%, 2015년 49.5%, 2019년 73.9%).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만한 사회적, 정신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에게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규율의 준수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한다. 규칙이 없는 경기는 참가자 모두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함께 체계적 접근과 단계별 실행을 통한 제도와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예절과 존중

직업활동을 할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며 일한다. 상사와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직업인이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효과적이고 즐겁게 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작업을 할 때에는 서로 돕고 존중하며 예절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사례



“멍청해서 같이 일 못 하겠네”라는 말에 상처받는 직장인

국립국어원의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방안 연구, 직장 내 대화법’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상당수가 상사나 동료 등의 말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공개적인 질책이나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분노 표현, 성차별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대화 예절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 업무 회의 상황에서 “내가 너를 관두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을 포함해 “대리인인데 아직도 그걸 못 하나”고 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을 끊어 버리는 일이 4~5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 회의와 보고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하급자를 향한 언어폭력은 그치지 않았다. 언어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수는 20%에 불과했다.
- 업무 수행 상황에서는 “그럼 잘하는 네가 해봐”라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본인의 잘못은 남에게 넘기고, 잘된 것은 자신이 취하려는 상급자의 태도가 문제였다. “야”라고 부르거나 ‘욕설’ 또는 ‘인신공격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사례 계속)

- 회식 상황에서는 응답자 중 51.3%가 갈등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끔(10번 중 2~3번) 또는 여러 차례(10번 중 4~5번) 갈등이 발생한다는 비율 역시 40.7%에 달해 아직도 상급자나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강압적인 회식 분위기 속에서 하급자가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임신부에게 한두 잔은 괜찮다”며 술을 마시라고 하거나, “너만 가정이 있느냐, 어린 게 어딜 도망가”, “여자가 따라 주는 술이 맛있다” 등 여직원을 희롱하는 상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561252/?sc=naver>



활동



일경험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태도로 불쾌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고 공유해 보시오.



무엇이 올바른 예절인지, 적절한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곤란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적절한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내용

◆ 예절의 의미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도덕적 이념을 상황에 따른 구체적 형식에 담아 일상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관습적 규범이다.

특히 사람이 무리를 지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일정한 지역을 생활문화권이라고 하고,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 모두 그렇게 행하는 생활방법이 예절이다. 따라서 예절은 언어문화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민족과 나라에 따라 언어가 다르듯이 예절도 국가와 겨레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언어문화권이라도 산과 강을 경계로 해 사투리가 있듯이 예절도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이렇듯 예절이 형식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예절의 다양성’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근본정신이다. 모든 예의범절의 근본정신은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나온다.

◆ 일터에서의 예절

서양에서는 예절을 에티켓과 매너로 표현한다.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형식적 측면이 강하고, 매너는 그 형식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표현하고, 매너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해야 하는 것은 에티켓이고 문을 한 번 두드릴 것인가, 세 번 두드릴 것인가 등은 매너에 해당한다. 직장예절은 이러한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점을 일반화한 비즈니스의 에티켓과 매너를 총칭하는 것이다.

인사는 사람이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타인을 사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다. 인사예절은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진실을 담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은 악수이다.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악수할 때 가볍게 절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허리를 세운 채 악수를 하므로 서양인 바이어를 만날 때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 또 악수는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청하는 게 예의다.

인사를 할 때나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고객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거나,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때 등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일터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

본 직장예절이 있으며, 이런 예절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호감을 넘어 성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예절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네티켓이다. 네티켓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통신상의 예절을 뜻한다. 통신기술은 비즈니스의 업무 형태를 바꾸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인터넷과 이메일, SNS 등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워낙 쉽고 널리 보급되어 있다 보니 남용 또는 오용되는 경우도 많다. 네티켓이 필요한 이유다.

이메일이나 SNS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에는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유출, 범죄, 허위정보의 유통, 해킹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상호존중의 문화

‘예절’의 핵심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존중이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권리를 배려해 주는 자세이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과 성폭력 등의 문제들은 타인의 기본 인권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심각한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만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언행’을 말한다. 그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 폭언과 같이 명백한 괴롭힘 행위뿐 아니라 사적 업무의 지시, 회식 참여나 음주흡연 등의 강요, 능력 이하의 업무 또는 매우 적은 업무만을 주는 경우, 지나친 업무 감시, 실적을 빼거나 적절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행위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약 1만 명 중 8.1%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범죄행위인 ‘성추행’이나 ‘성폭행’과는 구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는 필요한 인사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냐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기준의 특징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느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는지 아닌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성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83%(1002명)가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의 약 87%(858명)가, 남성의 67%(144명)가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인 말로는, 여성은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여성은 결혼하면 끝”,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여자치고는 잘 하네”, “독해서 승진한 거다”, “술은 여직원이 따라야 제 맞이지”가 있었고, 남성은 “남자가 그것도 못 해”,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남자니까 참아야지”,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공동체의 단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조직이 우선되는 기업에서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에게 정해진 답을 강요하게 된다. ‘출퇴근은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 ‘회식에 불참하는 사람은 조직에 애정이 없다’, ‘기혼여성은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게 효율적이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성별부터 나이,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더 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일 경험을 통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삼가고,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동료와 거래처 등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정리

1.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책임이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지려는 태도이며, 주어지거나 스스로 맡은 업무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행해 내는 태도를 말한다.
3. 모든 직업인들은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정신'과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직업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4. 준법이란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생활 자세이다. 민주 사회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5.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만한 사회적, 정신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변화는 물론이지만 이와 함께 체계적 접근과 단계별 실행을 통한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6.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다.
7. 인사를 할 때나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고객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거나,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등 출근부터 퇴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터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직장예절이 있으며, 이런 예절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호감을 넘어 성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8. '예절'의 핵심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존중이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권리를 배려해 주는 자세이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과 성폭력 등의 문제들은 타인의 기본 인권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심각한

실태를 보여준다.

9. 개인은 성별부터 나이,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더 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경험을 통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삼가고,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동료, 상하, 거래처 간에 존중과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후확인

체크리스트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직업윤리를 학습한 것을 토대로 다음 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보자.

구분	문항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J-1 직업윤리	1. 나는 윤리적 인간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윤리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윤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일과 인간의 삶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사회의 직업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개인윤리와 직업윤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직업윤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개인윤리와 직업윤리는 어떻게 조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J-2-가 근로윤리	1. 나는 근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근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우리 사회의 근면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정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사회의 정직성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성실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성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사회의 성실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J-2-나 공동체 윤리	1. 나는 봉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책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제조물 책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준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예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일터에서의 예절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상호존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확인방법

체크리스트의 문항별로 자신이 체크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적어 보자.

학습모듈	점수	총점	총점 / 문항 수	Page
J-1 직업윤리	1점 × ()개		총점 / 9 = ()	11~28
	2점 × ()개			
	3점 × ()개			
	4점 × ()개			
	5점 × ()개			
J-2-가 근로윤리	1점 × ()개		총점 / 9 = ()	29~43
	2점 × ()개			
	3점 × ()개			
	4점 × ()개			
	5점 × ()개			
J-2-나 공동체윤리	1점 × ()개		총점 / 9 = ()	45~61
	2점 × ()개			
	3점 × ()개			
	4점 × ()개			
	5점 × ()개			

확인결과



모듈별 평균 점수

3점 이상 : 우수





















3점 미만 : 부족


확인결과가 '부족'인 학습자는 해당 학습모듈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다시 학습하십시오.

참고자료

- ☞ 김광점 외(역), 『조직 이론과 실제』, 한경사(2007).
- ☞ 김진모, 정철영, 나승일, 『재직근로자 대상 직업기초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우송정보대학(2002).
- ☞ 김태길, 『직업윤리와 한국인의 가치관』, 철학과 현실사(1997).
- ☞ 롯데연수원, 『직장윤리 실천과정』, 롯데윤리강령 통신교육교재(2005).
- ☞ 이상철, 김대균, 『주제중심 직업윤리』, 정림사(2001).
- ☞ 장현오 외, 『직업윤리와 교육』, 부산대학교 출판부(2005).
- ☞ 최춘영, 임규정, 우정규(역), 『직업윤리』, 군산대학교 출판부(1995).
- ☞ 한국방송공사, 『신화창조의 비밀』, KBS 프로그램(2003-2005).
- ☞ 강승훈,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즈덤하우스(2020).
- ☞ 권경애 외, 『직업과 윤리』, 정민사(2019).
- ☞ 조남두, 『현대인의 직업윤리』, 동문사(2019).
- ☞ 강수돌 외,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코난북스(2016).
- ☞ 국립국어원(2015), “분야별 화법분석 및 향상방안 연구(직장 내 대화법)”
- ☞ 고용노동연수원(201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 ☞ 한국법제연구원(2019),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 ☞ 김태훈(2014), “성실의 미덕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4권 0호, 93-112.
- ☞ 류영숙(2010), “직장예절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 ☞ 장희선, 문용린(2012),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행동 선택과 정당화 방식 분석”, 교육심리연구, 26권 4호, 951-982.
- ☞ 조재현, 오세일(2017), “한국인의 근면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인문사회, 8권 4호, 통권 23호, 207-232.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J. 직업윤리	J. 직업윤리 
 I. 조직이해능력	I. 조직이해능력 
 H. 기술능력	H. 기술능력 
 G. 정보능력	G. 정보능력 
 F. 대인관계능력	F. 대인관계능력 
 E. 자원관리능력	E. 자원관리능력 
 D. 자기개발능력	D. 자기개발능력 
 C. 문제해결능력	C. 문제해결능력 
 B. 수리능력	B. 수리능력 
 A. 의사소통능력	A. 의사소통능력 

학습자용 가이드북 (총 10권) 

교수자용 가이드북 (총 10권) 

학습내용 확인하기 (총 10권) 